

# 청소년 평화교육센터 서울에 건립 합의



##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 발족

국난의 위기 속에서 호국불교 가치 하에 나섰던 의승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 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은 8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념일 제정까지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추진위원회 발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원 스님,

종회의장 항적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계사 한켠에서는 스님들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조계종은 해남 대흥사에 서명운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교구본사와 표충사, 갑사 등 호국사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노덕현 기자

### 8월 28일 ACRP 총회폐막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종교인들이 연대하고 적극적 현실참여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8월 28일 ACRP 총회에 참석한 450여 명의 종교인들은 인류의 안녕을 담은 ‘인천선언문’과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26일부터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번 선언문을 제정했다.

우선 ‘인천선언문’에서는 인류의 화합과 평등을 위해 아시아종교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고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정부와 협력,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종교지도자들이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소수민족,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 표출 통로가 되는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차별과 비방을 줄이는 법안 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제8차 ACRP 총회에서 자승 스님(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평화를 위해 행동할 뜻을 밝힌다. 사진=박재원 기자

### 자승 스님, ACRP 신임대표의장 선출 ‘인천선언문’ ‘한반도평화선언문’ 채택 미얀마·말레이시아 신규 회원 가입 2018년 WCRP 총회 한국개최 논의

다양성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8월 25일 열린 여성대회서 제안된 내용들도 채택됐다. 종교인들은 ACRP 지원을 받아 여성·아동 차별 방지

공공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KCRP 대표회장인 자승 스님의 ACRP 대표의장 추대도 이번 총회의 쾌거중 하나다. 자승 스님은 덩 삼수딘 의장과 함께 다음 ACRP 총회가 열리는 2019년까지 ACRP를 이끈다.

자승 스님은 폐회식에서 ACRP 대표의장직을 수락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교 간 대화 기구인 ACRP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CRP 사무총장에도 김성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임으로 일본의 요시타카하

타케야마가 선출됐으며, 여성위원장은 필리핀의 릴리안 시슨이 재선출됐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기 식사 거르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식사기금 1만달러를 KCRP측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미얀마와 말레이시아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해 회원국은 모두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윌리엄 벤들리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사무총장도 이번 총회에 방한했는데, 이는 2018년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한국 개최 논의를 위해서였다. 윌리엄 사무총장은 KCRP 의장단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들은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도 이에 대한 실무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5억원의 기금을 마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평화교육센터를 서울에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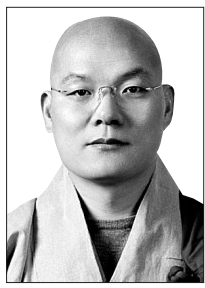
한편 이번 총회는 8월 25일부터 35개국 450여명의 아시아 종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4박 5일간 열렸다. 당초 공동개최국으로 거론됐던 북한측은 정치적 이유로 불참했으며 회원국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 총무원 교역직 인사 단행... 호법국장 서호, 조사국장 효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7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후임에 보경 스님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교역직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호법과장에 인오(해인사)·조사과장에 덕일(송광사)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효상 스님의 조사국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사서국장에는 도성 스님(도선사)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또 최근 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호법국장 해만 스님과 조사국장 법원 스님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해 호법국장에는 청양장곡사 주지 서호 스님을, 조사국장에는 사서국장 효상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성월 스님의 용주사 주지 당선으로 공석이 된 강화정수사 주지에 총무원 사서 선혜 스님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성월 스님의 용주사 주지 당선으로 공석이 된 강화정수사 주지에 총무원 사서 선혜 스님을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 태고종, 총무원장 퇴진결의 두고 내홍 심화

### 원로회의 “불신임 상정” vs 총무원측 “불법적 행동”

한국불교태고종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발단은 8월 28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권덕화 스님) 결과서 비롯됐다. 총 22명중 15명(참석 11명, 위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로회의에서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 종회의장 해공 스님, 호법원장 수열 스님 등 3원장 퇴진을 결의했다. 또한 회의가 끝난 뒤에는 원로회의 의장단이 해초 종정 스님을 진건하고 품청서를 올린 뒤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측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정 스님을 협박해 받아낸 불법적 처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태고종 원로회의 임원진은 8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산 총무원장은 종헌준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독단을 전횡해 위계질서를 파헤치고 있다”며 “종정 스님도 총무원장이 퇴진할 것을 재가해 주신 만큼 자신 사퇴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원로회의측은 “총무원장이 사퇴하지 않음시 중앙총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시킬 것이며, 아울러 총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을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하지만 총무원 측은 29일 문서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태고종 원로회의가 권한에도 없는 3원장 동반 퇴진을 결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원로회의측이 강압적으로 모든 종무전권을 위임받는 것도 역시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대각회, 조계종에 법인 등록키로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도업)는 8월 26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제229회 이사회를 열고 9월 30일까지 조계종에 법인을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해 이사 도문, 선효, 혜충, 태원, 보광, 장산, 혜국, 지홍 스님이 참석했으며 대각회 소속 사암을 대표해 대각회사암연합회장 원정 스님과 감사 지연 스님이 배석했다. 비공개로 약 세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대각회는 찬반 토론 끝에 법인 등록에 뜻을 모았다.

도업 스님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론을 통해 조계종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분원장들이 법인관리법 등의 여부에 찬반 의사를 표시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이라고 밝혔다.

대각회 이사 중 한 스님은 “대각회는 용성문도회의 기반이 많은 곳”이라며 “용성 스님께서 한국불교를 중흥시키시고 대각교를 펼친 창립취지에 기반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총무원, 선학원 관련 2차 자료집 발간

법인등록을 놓고 선학과 갈등 중인 조계종이 선학원 분원장들에게 예비등록을 독려하는 자료집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부는 최근 선학원 관련 2차 자료집인 《선학원 이사회 전행, 분원장 스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를 전국 사찰과 선학원 분원에 배포했다.

조계종은 자료집에서 선학원 이사회의 법인등록 거부에 따른 대처 방법인 등록 거부에 따른 문제 선학원 이사회의



역할과 의무 선학원 이사회의 전행 △ 탈종하려는 선학원 이사회 △ 법인관리법에 대한 선학원 주장의 허구 △ 법인관리의 수용에 대한 입장 비교 등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약사사·선암사 직영사찰 해제 ‘논란’

조계종 총무원이 직영사찰을 중무회의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 포교거점도량 명목으로 직영사찰로 지정된 개화산 약사사를 3년 만에 직영해제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7일 중무회의를 열고 서울 약사사와 순천 선암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직영사찰의 해제는 지정과 달리 아직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직영사찰법에 따르면 ‘사찰재정악화’와 ‘사찰분규’ 등으로 직영사찰이 지정된 경우 문제가 해소 후 중앙총회 등의 하에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포교거점도량과 재정우량 등의 사유로 지정된 경우 해제 규정이 정해있지 않다.

총무원 관계자는 “중앙총회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었으나 현행 종법상 중무회의에서 지정해제를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순천 선암사의 경우에는 사찰분규로 인한 직영으로 지정된 사찰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 약사사의 경우도 2011년 11월 당시 통도사 등의 반발에도 ‘종단 목적사업과 수도권 포교 강화’를 기치로 포교거점도량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하에 지정됐기에 3년 만의 직영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무원은 이르면 9월 초 해당 사찰에 대한 신입 주지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시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안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안,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본산 제등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등길 43번길 13-11 (제등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742-0246 / 사무총장 010-6328-2773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